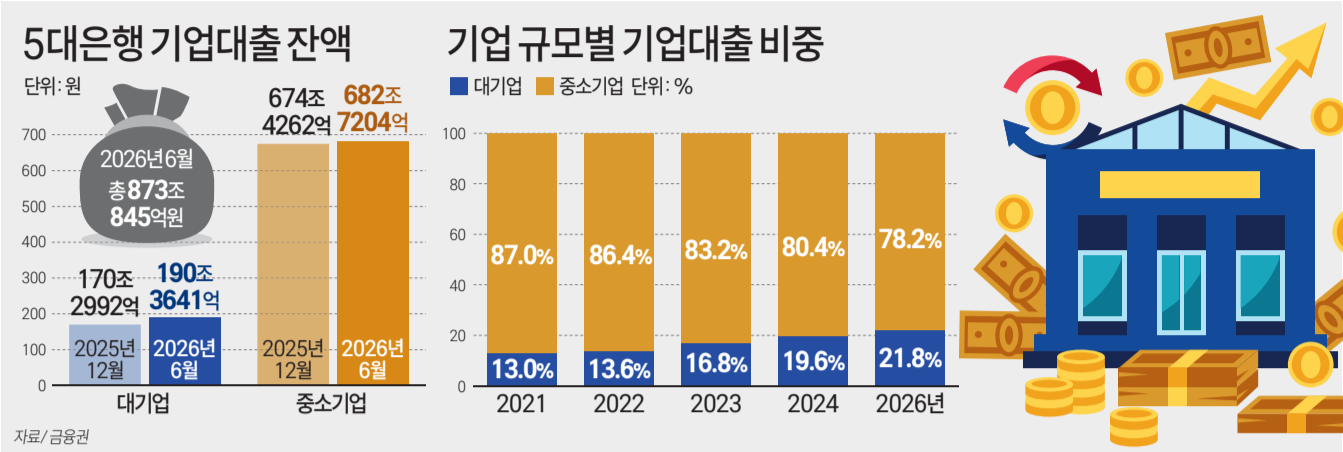


# 대·중기 은행대출 양극화... '고신용' 대기업에 자금 몰린다

5대 은행 기업대출 잔액 874조  
대기업 20조 늘때, 중기 8.3조 늘어  
'경기둔화' 中 小 信 用 위 험 도 상 승  
첨 단 산 업 중 심 대 규 모 투 자 영 향



올 상반기 은행권에서 중소기업대출보다 대기업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투자와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어진 영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도 격차도 확대되면서 대출이 대기업으로 더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6월말 기업대출 잔액은 873조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28조3591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말(+9조1158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커졌다.

기업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대기업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90조3641억원으로 20조 649억원 늘었다. 특히 대기업대출은 지난 달에만 4조9285억원 늘며 전월 대비 2.66%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 682조7204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증가액은 8조2942억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에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가운데 대기업 대출 비중은 상반기 기준 2021년

13%에서 2022년 13.6%, 2023년 16.8%, 2024년 19.6%, 지난해 20%를 거쳐 올해 21.8%까지 높아졌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7%에서 78.2%로 낮아졌다.

이처럼 대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수요가 이어진 영향이 크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대기업들의

은행 대출 수요도 증가했다. 회사채 금리 상승 등으로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이 예전만 못해진 점도 은행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은행 입장에서도 우량 기업 위주의 대출 확대가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금융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

되는 모습이다.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건전성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5%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여섯 배 이상 높았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1.03%로 1%를 넘어섰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82%를 기록했다.

은행권에서는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서비스업이나 요식업 등에 집중돼 있어 업황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대량 채권과 유동화 규모도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서 대출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고객 의미 잊지 말고, 초심을 기억해야”

신한은행 창립 44주년 기념식  
땀겨요 할인쿠폰 이벤트 진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창립 4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7일 창립 44주년 기념식에서 “신한은행은 창립 당시 대한민국의 금융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변화의 파도 속에서 오늘의 신한을 있게 해준 고객의 의미를 잊지 말고, 언제나 창립 당시의 초심과 간절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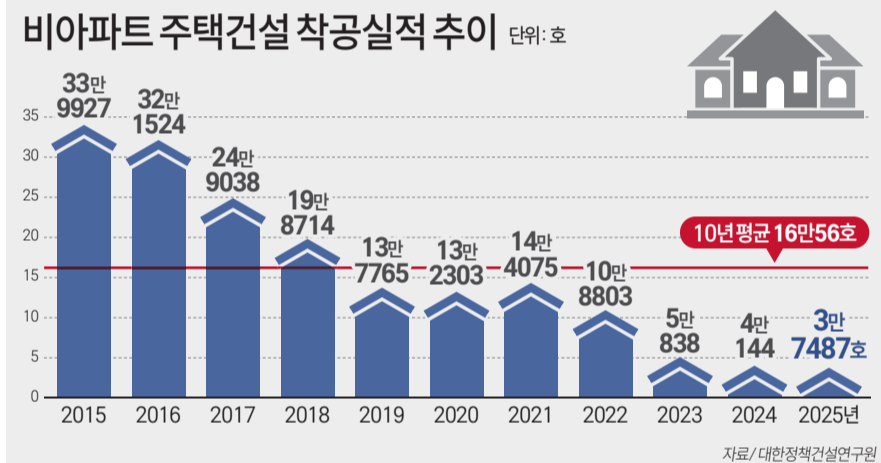
신한은행은 창립 44주년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 슈퍼 솔(SOL)’을 통해 ‘슈퍼 SOL X SOL LINK 땀겨요 할인쿠폰 이벤트’를 진행하고, 건강 플랫폼과 연계한 ‘신한 20+ 뛰어요’와 ‘신한 50+ 걸어요’ 이벤트를 통해 고객에

본점 로비에서 출근·점심·퇴근 시간대에 공연을 펼친다.

창립 기념 주간에는 임직원 자녀를 위한 서울대학교 캠퍼스 투어 등 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직원행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오는 11일까지 임직원이 참여하는 인택트 러닝 및 플로깅 행사 ‘신한새싹런(RUN)’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 참가비와 은행의 매칭기부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고 ▲소방관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7B’ 창립이념에 부합하는 7개 기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창립 44주년을 맞아 신한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해온 고객과 임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 비아파트 착공실적·수요 동시 위축

작년 전국 주택 착공실적 28만호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수준 그쳐  
비아파트 착공 3.7만호, 23% 불과

반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임대수요가 집중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6만 6000호를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약 5만 4000호가 신축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주요 공급원이었던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9만호에 달하는 매입임대 비아파트 시장 회복과 임대차 안정을 모두 잡겠다고 나섰다지만 수요 위축에 효과는 미지수다.

7일 대한정책건설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실적은 27만8957호로 최근 10년 평균(53만584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주택 착공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이후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고 위원은 “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만큼 최근 수도권 임대차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공급수단으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비아파트 수요 역시 위축됐다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이다. 실제 전세사기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서울 주택 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7.6%에서 지난해 30.5%까지 낮아졌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착공실적은 3만7487호로 최근 10년간 평균치(16만56호)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착공실적 가운데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3% 수준으로 10년 전 39%에서 크게 하락했다.

착공은 통상 2~3년의 시차를 두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택 전체의 착공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비아파트는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인 비아파트의 공급 기

그는 “전체 주택거래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본격화된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며 “비아파트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뿐 아니라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카드사, 리볼빙 등 단기대출도 ‘금리역전’

고신용자 현금서비스 평균금리  
15.14%→15.20%로 오르고  
700점 이하 19.15%→19.10%

리볼빙도 다르지 않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다음 달로 넘기는 리볼빙 서비스 금리 평균은 지난 4월과 5월 17.34%로 같았으나 신용 구간별 차이가 생겼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 평균 금리는 15.03%에서 15.06%로 상승했고, 800점 이하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18.98%에서 18.96%로 떨어졌다.

장기대출 상품인 카드를 중심으로 나타났던 신용도별 금리 역전 현상이 단기대출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같은 기간 카드론 역시 고신용자 평균 금리는 10.52%에서 10.99%로 올랐고, 저신용자는 17.18%에서 17.09%로 떨어졌다.

통상적으로 금리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책정된다.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신용 리스크’였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신용이 높으면 금리를 낮게 산정하고, 신용이 낮으면 금리를 높게 산

정해 연체 위험을 방어해 왔다.

그러나 이처럼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난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의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확대 정책이 꼽힌다.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 공급분을 늘린 데 따른 영향이라는 것.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최대 80%를 예외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도 보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카드사들이 총량 규제를 달기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드사들의 중저신용자 중심 자금 공급 기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신업계는 이달 중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출시하고, 올해 10월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성 보증부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카드사들의 ‘금리 역전’ 현상이 단기대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장기대출인 카드론에 이어 현금서비스, 리볼빙에서도 고신용자 금리는 상승하고, 저신용자 금리는 하락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의 지난 5월 현금서비스 전체 평균 금리는 18.12%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4%포인트(p) 떨어졌다.

전체 평균 금리는 하락했으나 신용등급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 평균 금리는 15.14%에서 15.20%로 상승한 반면, 700점 이하의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19.15%에서 19.10%로 하락했다.